

고창읍성 전경.

고창읍성 일원 생태 휴식공간 만든다 환경부 '자연마당' 공모 선정 사업비 30억 확보

고창군 대표 관광지인 고창읍성 일원이 생태계가 잘 보존된 주민들의 생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된다.

군은 국정과제인 '행복한 생활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2016년 '자연마당' 조성사업 대상지역에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연마당' 조성은 도시 생활권이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을 생태복원하는 사업으로 고창읍성 일원에 동식물 서식 공간, 생태학습장, 자연관찰로 조성 등 쾌적한 생태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창의 대표관광지이자 문화재인 고창읍성은 사계절 내내 군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의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고창읍성 주변

의 불법경작 및 묘지조성 등으로 훼손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중 완충지역인 고창읍성 일원에 생태휴식 공간 '자연마당' 조성을 통해 도심지역의 생물다양성 증진, 도시경관 조성 등 생물권보전 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시생태계 서비스 증진 등 도심 생태거점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토지매입, 인·허가 및 실시설계, 기반정비 등 절차를 거쳐 2018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윤곡습지, 2017년 완공 예정인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등과 연계해 주민 및 학생들의 생태 체험 교육의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고창=김성규 기자

고창읍성, 생태휴식공간 재탄생

자연마당 공모 국비 30억 받아

郡, 주변 훼손 자연경관 복원

생태거점 도시로 발돋움 기대

고창군 대표 관광지인 고창읍성 일원이 생태계가 잘 보존된 주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군은 11일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2016년 '자연마당' 조성사업 대상지역에 7개 지자체 간의 치열한 경쟁을 끝고 전국 2개소 중 고창군이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연마당' 조성은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의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고창읍성 일원에 동식물 서식 공간, 생태학습장, 자연관찰로 등을 조성해 군민들에게 폐적한 생태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이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공모사업 현장심사에서 환경부 공모사업 평가단에 사업의 당위성과 고창읍 노동권역 기본계획 등을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유치로 최종 선정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군은 고창읍성 일원에 환경부가 추진 중인 2016년 '자연마당' 조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
고창군 제공

이번 사업선정으로 고창읍성 주변의 불법경작 및 묘지 등으로 인한 훼손된 자연 생태계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중 완충지역인 고창읍성 일원에 생태휴식공간 '자연마당'이 조성되면 도심지역의 생물다양성이 증진되고 이에 따른 도심 경관도 좋아져 고창읍성이 문화 역사의 중심지이자 고창읍의 생태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은 토지매입, 인허가 및 실시설계, 기반정비 등 절차를 거쳐 2018년까지 자연마당 생태휴식공간을 완공할 계획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공모사업을 진행했다"며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운곡습지, 2017년 완공 예정인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와 연계해 주민 및 학생들의 생태 체험 교육의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고창=남궁경총 기자

고창군, 자연마당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국비 15억 지원 생태공간 탈바꿈

고창군이 환경부 공모사업인 2016년도 자연마당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11일 전북도는 “도심 속 훼손된 자연을 복원해 생태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환경부의 자연마당 조성 공모사업에 충북 충주시와 함께 도내에서는 고창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공모한 자연마당 조성 사업은 도시 내 훼손되고 방치된 지역을 생태적으로 복원해 습지, 자연학습장, 관찰로 등 도시민에게 생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고창군은 고창읍성 주변의 훼손되고 방치된 6만7천㎡의 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해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해 12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응모, 지난달 1월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이번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환경부 공모 사업에는 전국에서 7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고창군은 평균 3.5대 1의 경쟁을 뚫고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전국 최초로 광역 시도 차원에서 ‘3번째’ 자연마당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며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국비 15억5천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과 전북도의 품격 및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며 장기간 훼손 방치된 산림과 수변공간이 생태휴식공간으로 탈바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 복원을 통한 생물 다양성 증진 등 전북도가 아심차게 추진중인 전북형 생태관광 육성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형진 기자

고창읍성 일원 생태휴식공간 조성



박우정 고창군수가 환경부 공모사업 평가단 현장설시에서 고창읍성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 자연마당 사업 대상 선정 국비 30억원 확보…2018년 완공 군 “고창갯벌·운곡습지와 연계 생태체험관광 활성화 등 기대”

고창군 대표 관광지인 고창읍성 일원이 생태계가 잘 보존된 주민들의 생태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될 전망이다. 이는 행복한 주민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고창군이 최종 선정됨으로써 가능해졌다.

11일 군에 따르면 국정과제로 환경부가 추진 중인 2016년 ‘자연마당’ 조성사업 대상 지역에 전국 7개 지자체 간의 치열한 경쟁을 끊고 고창군이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연마당 조성은 도시 생활권이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을 생태복원하는 사업으로 고창읍성 일원에 동식물 서식 공간, 생태학습장, 자연관찰로 등을 조성해 군민과 학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생태공원을 제공한다.

고창의 대표관광지이자 문화재인 고창읍성은 사계절 내내 군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의 명소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토지매입, 인·허가 및 실시설계, 기반정비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018년에 완공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이 완공되면 고창갯벌과 운곡습지를 연계한 생태체험과

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우정 군수는 “이번 사업선정으로 고창읍성 주변의 불법경작 및 묘지조성 등으로 훼손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도심지역의 생물다양성 증진, 도시경관 조성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시생태계 서비스를 증진하는 도심 생태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군수는 이번 사업 유치를 위해 환경부 공모사업 평가단 현장설시에서 사업의 당위성과 고창을 노동권역 기본계획 등을 직접 설명하는 등 사업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신동일기자 · 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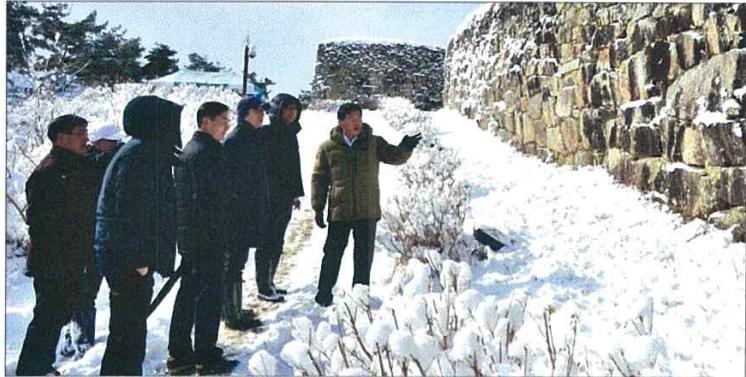
고창읍성, 군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자연마당' 선정 30억원 확보 쾌적한 생태휴식공간 조성

고창군 대표 관광지인 고창읍성 일원이 생태계가 잘 보존된 주민들의 생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군은 국정과제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2016년 '자연마당' 조성사업 대상지역에 7개 지자체 간의 치열한 경쟁을 끊고 전국 2개소 중 고창군이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연마당' 조성은 도시 생활권이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을 생태복원하는 사업으로 고창읍성 일원에 동식물 서식 공간, 생태학습장, 자연관찰로 조성 등 군민과 학생들에게 쾌적한 생태휴식 공간인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공모사업 현장실사에서 환경부 공모사업 평가단에 사업의 당위성과 고창읍 노동권역 기본계획 등을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고창군 대표 관광지인 고창읍성, 공모사업 평가단에게 고창읍성을 설명중인 모습이다.

사업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의 대표관광지이자 문화재인 고창읍성은 사계절 내내 군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의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고창읍성 주변의 불법경작 및 묘지조성 등으로 훼손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중 완충지역인 고창읍성

일원에 생태휴식공간 '자연마당' 조성을 통해 도심지역의 생물다양성 증진, 도시경관 조성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시 생태계 서비스 증진 등 도심 생태거점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토지매입, 인·허가 및 실시설계, 기반정비 등 절차를 거쳐 2018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고창=박용관 기자(sc0747@)

고창읍성, 생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환경부 자연마당사업 선정

30억 확보 생태복원 실시

생태학습장-생태공원조성

고창군 대표 관광지인 고창읍성 일원이 생태계가 잘 보존된 주민들의 생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군은 국정과제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환경부가 주진 중인 2016년 '자연마당' 조성사업 대상지역에 7개 지자체 간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전국 2개소 중 고창군이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자연마당' 조성은 도시 생활권이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을 생태복원하는 사업으로 고창읍성 일원에 동식물 서식 공간, 생태학습장, 자연관찰로 조성 등 군민과 학생들에게 쾌적한 생태휴식 공간인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공모사업 현장심사에서 환경부 공모사업 평가단에 사업의 당위성과 고창을 노동권역 기본계획



지난 11일 고창군은 2016년 '자연마당' 조성사업 대상지역에 7전국 2개소 중 고창군이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등을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고창읍성 주변의 불법경작 및 묘지조성 등으로 훼손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중 완충지역인

고창읍성 일원에 생태휴식공간 '자연마당' 조성을 통해 도심지역의 생물다양성 증진, 도시경관 조성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시생태계 서비스 증진 등 도심 생태거점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자연마당 조성 사업은 운곡습지, 2017년 완공 예정인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와 연계해 주민 및 학생들의 생태 체험 교육의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고창=김준원기자 jwkim@



고창군이 환경부가 추진 중인 2016년 '자연마당' 조성사업 대상지역에 선정됐다.

고창읍성 '생태휴식공간' 으로

환경부 자연마당 공모사업 선정… 30억원 확보

고창군 대표 관광지인 고창읍성 일원이 생태계가 잘 보존된 주민들의 생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군은 국정과제 행복한 생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2016년 '자연마당' 조성사업 대상지역에 7개 지자체 간의 치열한 경쟁을 끝고 전국 2개소 중 고창군이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연마당' 조성은 도시 생활권이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을 생태복원하는 사업으로 고창읍성 일원에 동식물 서식 공간, 생태학습장, 자연 관찰로 조성 등 군민과 학생들에게 꽤적인 생태휴식 공간인 생태공원

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공모사업 현장심사에서 환경부 공모사업 평가단에 사업의 당위성과 고창읍 노동권역 기본계획 등을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의 대표관광지이자 문화재인 고창읍성은 사계절 내내 군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의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고창읍성 주변의 불법경작 및 묘지조성 등으로 훼손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중 완충지역

인 고창읍성 일원에 생태휴식공간 '자연마당' 조성을 통해 도심지역의 생물다양성 증진, 도시경관 조성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시생태계 서비스 증진 등 도심 생태거점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토지매입, 인·허가 및 실시설계, 기반정비 등 절차를 거쳐 2018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공모사업을 진행했다"며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운곡습지, 2017년 완공 예정인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와 연계해 주민 및 학생들의 생태 체험 교육의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고창=임동갑기자

2016년 02월 12일 금요일
001면 종합

고창읍성 생태휴식공간 재탄생

환경부, 자연마당 공모 선정 사업비 30억원 확보

고창군 대표 관광지인 고창읍성 일원이 생태계가 잘 보존된 주민들의 생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환경부가 추진 중인 2016년 '자연마당' 조성사업 대상지역에 7개 자자체 간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

'자연마당' 조성은 도시 생활권이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을 생태복원하는 사업으로 고창읍성 일원에 동식물 서식 공간, 생태학습장, 자연관찰로 조성 등 군민과 학생들에게 쾌적한 생태휴식 공간인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창의 대표관광지이자 문화재인 고창읍성은 사계절 내내 군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의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의 품격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장기간 훼손 방치된 산림과 수변공간이 생태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 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관광의 도심 생태거점지역으로 조성해 전북도가 아심차게 추진 중인 전북형 생태관광 육성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공모사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토지매입과 인·허가, 실시설계, 기반정비 등 절차를 거쳐 2018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신의희기자/syhee5311@hanmail.net](mailto:syhee5311@hanmail.net)

고창읍성 환경부 공모 선정

주변지역 도시민들 위한 생태 휴식공간 조성

전북도 고창군에 위치한 고창읍성(사적 제145호) 주변이 훼손되고 방치된 모습에서 벗어나 도시민을 위한 생태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관련기사 11면〉

지난 2월 환경부에서 선정한 2016년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전북 고창과 충북 충주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11일 고창군 고창읍성 일대($66,611m^2$)가 2016년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도시 내 훼손되고 방치된 지역을 생태적으로 복원해 습지, 자연학습장, 관찰로 등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총 50억원(국비 15.5억원, 지방비 34.5억원)의 규모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3년에 걸쳐 15.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지난 4년간

전북도만 유일하게 2번의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사업 대상지 내에 사유지와 분묘가 많아 평가위원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강해 선정 전까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도의 환경부에 대한 시기 적절한 대응을 통해 얻어낸 결과이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과 전북도의 품격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장기간 훼손 방치된 산림과 수변공간이 생태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 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관광의 도심 생태거점지역으로 조성해 전북도가 아심차게 추진 중인 전북형 생태관광 육성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영수 기자

고창읍성에 ‘자연마당’ 생긴다

국비 30억 확보…2018년까지 완공

훼손·방치된 공간 생태공원으로 재탄생

고창지역 대표 관광명소이자 문화재인 고창읍성(사적 제145호) 일대가 지역민을 위한 생태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고창군은 “환경부의 2016년 ‘자연마당’ 조성사업 대상지역에 7개 지자체 간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전국 2개소 중 고창군 고창읍성이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연마당’은 도시 생활권의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에 습지, 개울, 초지, 숲 등 다양한 형태의 동·식물 서식처를 복원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고창읍성의 자연마당 선정은 박우정 고창군수가 공모사업 현장심사에서 환경부 공모사업 평가단을 대상으로 사업 당위성과 고창읍 권역 기본계획 등을 직접 설명하는 등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군은 고창읍성 일대가 ‘자연마당’ 조성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8년까지 사업 대상 토지를 사들이고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공간과 생태학습장, 자연관찰로 등을 갖춘 생태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고창군은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통

해 불법 경작과 묘지 조성으로 훼손된 고창읍성 주변의 생태와 경관을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중 완충지역인 고창읍성 일원에 생태휴식공간인 ‘자연마당’이 조성됨에 따라 도심 지역의 생물다양성 증진, 도시경관 조성 등 생물권 보전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통한 도심 생태거점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공모해 국비까지 확보하게 됐다”면서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내년에 완공될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와 운곡습지 등과 연계해 생태 체험 교육 및 휴식의 기본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고훈석기자 ghs@



박우정 고창군수가 고창읍성에서 환경부 공모사업 평가단 등을 대상으로 자연마당 조성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2016.02.11

'생태·휴식 공간'...고창군, 고창읍성에 '자연마당' 조성



(고창=연합뉴스) 전성옥 기자 = 전북 고창군은 고창읍성(사적 제145호) 일대의 생태계를 복원해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고창군은 주민을 위한 생활·문화공간을 가꾸고자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자연마당' 조성사업 대상지역에 고창읍성이 선정돼 3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자연마당'은 도시 생활권의 훼손 되고 방치된 공간에 습지, 개울, 초지, 숲 등 다양한 형태의 생물 서식처를 복원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창군은 고창읍성 일대가 '자연마당' 조성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8년까지 사업 대상 토지를 사들이고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 공간과 생태학습장, 자연관찰로 등을 갖춘 생태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고창군은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통해 불법 경작과 묘지 조성으로 훼손된 고창읍성 주변의 생태와 경관을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내년에 완공될 예정인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와 더불어 생태교육과 휴식의 기본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군, 고창읍성 재정비 국비 30억 확보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의 대표 관광지인 고창읍성 일원이 생태계가 잘 보존된 주민들의 생태 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군은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환경부의 '2016년 자연마당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며 이를 활용해 고창읍성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도시 생활권의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고창읍성 일원에 동식물 서식 공간과 생태학습장, 자연관찰로 등을 조성함으로써 군민과 학생들에게 쾌적한 생태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토지매입과 인허가 및 실시설계, 기반정비 등을 거쳐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고창읍성이 공모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기까지는 환경부 공모사업 평가단의 현장실사 등에 직접 나서 사업의 당위성과 기본계획을 설명하는 등 박우정 군수의 역할이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군수는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공모사업을 진행했다"며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운곡습지와 2017년 완공 예정인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에 연계된 생태체험교육의 주축이 될 것"이라고